

SOCIETY

2025년 4월 2일 수요일

6·25 참전용사 유해, 72년 만에 아들 품으로

북구 소상공인 지원계획 수립 맞춤형 지원...경영 부담 완화

광주 북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2025년 소상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대내외적으로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내수경제 둔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북구는 올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특색있는 골목형 상점 조성, 금융소외계층 포용적 지원 등 3개 분야, 33개 세부사업에 총 36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6개 세부사업, 예산 14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세부 사업에는 소상공인 지원 거점 공간을 구축하는 것부터 마케팅 지원, 사업장 환경 개선 사업, 온라인 판로 개척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활동 전반에 필요한 사업들이 고루 포함됐다.

북구는 소상공인 맞춤형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과 'AI 기반 소상공인 지원시스템 구축'을 중점 추진해 온라인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발맞춰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 지원 사업도 추진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 환경을 조성한다. 이산화 기자

국방부 유해발굴단·동구, 고 김영기 하사 귀환 행사 DNA 일치...아들 김성록 "생전에 모실 수 있어 기뻐"

"오랜 기다림 끝에 아버지를 모실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1950년 6·25전쟁 중 중국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웅이 72년 만에 가족 품으로 돌아왔다.

1일 광주 동구 등에 따르면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노력 끝에 신원이 확인된 고 김영기 하사의 유해가 유가족이 있는 동구 학운동으로 돌아왔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주관한 호국영웅 귀환 행사는 동구 학운동 유가족의 자택에서 신원확인 통지서 전달, 6·25전쟁 참전기장 수여, 호국의 얼 함 전달, 헌화·묵념, 포상금·위문품 전달, 참전 경

로, 유해 발굴 지원 소개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고 김영기 하사의 아들 김성록씨(73), 며느리 이애란씨(71·여)를 비롯해 임택 동구청장,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 김종필 8사단 주임원사, 김동희 31사단 대대장 등이 참석했다.

1931년 5월 강원도 정선에서 태어난 고 김영기 하사는 부인과 갓난아기인 아들(김성록씨)을 남겨둔 채 1953년 1월12일 국군 제8사단 소속으로 입대해 6·25전쟁에 참전했다.

김 하사는 1953년 7월 13~19일 강원 철원 일대에서 벌어진 '금성지구 전투'에



이근원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장(오른쪽)이 고 김영기 하사의 아들 김성록씨에게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를 전달하는 모습.

참전에 전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유해는 유해발굴감식단의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된 첫해인 2000년 9월 강원 철원군 근동면 일대에서 발굴됐다.

김성록씨(73)가 2015년 1월 DNA 시료 채취를 한 뒤 올해 2월 DNA와 대조 작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됐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그는 이제 아들과 함께 영면할 수 있게 됐다.

고 김 하사의 유해는 국방부와 논의를 거쳐 대전 국립현충원 묘역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성록씨는 "DNA를 채취한 지 10년이 지나 마음을 비웠는데, 아버지 유해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고 꿈인지 생인지 분간이 안 됐다"며 "생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준 국방부에 감사하다"고 전했다.

임택 청장과 이근원 단장은 호국 정신에 대해 감사함을 표시했다.

임택 청장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을 통해 찾은 유해를 유족에게 전달하는 모습

이 감동적이다"며 "동구에서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 뿌듯하다"고 말했다.

이근원 단장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개인의 목숨을 담보로 전쟁에 나서도 록 명령하는 것이 국가의 권리라면, 전쟁이 종식됐을 때 그분을 모셔와 국가의 이름으로 선양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을 잊지 않고 끝까지 가족의 품으로 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성지구 전투는 6·25전쟁에서 최후의 전투로 더 잘 알려졌다. 금성지구 전투 전적비는 1957년 7월15일 육군 제3·6·8·11·수도사단이 건립했으며, 현재는 육군 슬리부대가 관리하고 있다. 매년 6월 국군장병들의 공적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이 거행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동구, 광주천 무단 경작지 6월까지 정비

광주 동구는 주민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광주천 무단 경작지 정비 사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천 주변의 무분별한 경작이 지속되면서 환경 훼손과 경관 저해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구는 오는 6월까지 남계마을과 내남동 일원의 무단 경작지를 체계적으로 정비

하고, 주민 휴식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며, 남계마을(진아리채 1차 아파트 앞) 무단 경작지에는 영산홍 1500그루를 심어 녹지공간을 조성했다. 내남동 일원(진아리채 2차 아파트 앞)의 텃밭은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하얀 목련꽃 아래 1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학교 캠퍼스에서 활짝 핀 하얀 목련 아래로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XPERON
No.1 Premium Balance Golf Ball

단 하나의 진짜 밸런스 라인

[모든 골프공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엑스페론은 그 당연함의 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은 생산하는 순간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은 그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골프공마다 나아가는 라인을 재설정 해줘야 합니다.

엑스페론 골프공은 밸런스와 무게중심을 과학적 특허기술을 적용해 골프공에 존재하는 단 1개의 퍼팅라인과 드라이브 라인을 각각 마킹하여 세계최초로 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골프를 사랑하는 골퍼인은 평균 5타 이상 핸디를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게 입증되었습니다.

엑스페론

시험문제·정답 거래...대학가 '족보 매매' 심각

광주권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서 유행...직접거래 유도도 원작자 등의 없이 유포...문제부·전문가 "저작권법 위반"

광주지역 대학가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문제와 답안을 사고파는 행위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어 논란이다. 시험지, 노트 필기 등으로 이뤄진 이른바 '족보'를 거래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정의된 만큼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대학가에 따르면 4월 중~하순으로 예정된 중간고사가 다가오면서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특정 과목의 기출문제와 정답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잇따르고 있다. 족보를 하나 구매해 여러 명에게 되팔기도 한다.

실제로 광주의 A대학교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건의 족보 판매 및 구매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판매자는 '조직행동론 조행 기흥주 족보 팔아요'라는 제목으로 담당 교수의 초성과 함께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은 "작년 중간·기말·계절 학기뿐만 아니라 2023년 중간·기말고사까지 직접 복

원했다"며 "서술형, 단답형 정답지도 일괄 판매한다"고 홍보했다.

판매자는 계좌번호와 가격 등을 알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링크를 게시하며 직접 거래를 유도하기도 했다.

광주 B대학교에서도 이러한 족보 거래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한 작성자는 "언어레시피로 광고 요리하기 족보 및 정리본 패키지 판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2024년도 1학기 기말고사 족보(20문제), 2023년도 2학기 기말고사 족보(20문제) 등 다양한 기출문제와 정리본을 판매한다"고 알렸다.

물론 족보를 개인적으로 만들고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족보를 영리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비영리 목적이라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대다수의 족보는 원저자자인 교수의 허

락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위반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족보를 매매·배포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구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도 범죄에 해당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 역시 '대학생이 지켜야 할 저작권 상식'을 통해 기출문제를 모아 판매하거나 간주해 편집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정의했다.

더욱이 누군가는 족보를 구하고, 누군가는 족보를 구하지 못하는 사태가 이어질 경우 교육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족보를 외워 시험을 보면 평가의 본래 기능이 변질되고 대학 교육의 목적이 퇴색될 수 있어서다.

김진구 목포대 법학과 교수는 "기출문제나 답안을 판매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다른 사람이 만든 시험문제를 동의 없이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고려인마을 '광복 80주년' 전시·문화행사 준비

'역사마을1번지' 광주고려인마을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고려인문화관에서 특별 전시와 다양한 기념행사를 연다.

1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고려인문화관은 광산구 지원을 받아 지난달 1일부터 '고려인 한글문학전'을 개최 중이며, 이날부터는 특별전시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을 선보인다.

'고려인 한글문학전'은 혹독한 이주 역사 속에서도 한글을 지키며 문화를 이어

온 고려인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조명하며, 문학을 통해 전승된 민족정신을 들여다본다.

특별전 '중앙아시아로 건너간 사할린 한인들'은 지금까지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사할린 한인의 이주와 삶을 조명하며, 고려인 역사 속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다.

두 전시는 모국어 사용이 제한된 환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문화를 전승한 고려인 공동체의 역사와 정체성을 돌아보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시 관람은 고려인문화관 누리집에서 사전 예약하면 해설사의 전문 해설과 함께 할 수 있다.

전시와 연계한 문화행사도 준비됐다.

오는 11일과 19일에는 이야기 공연(토 크론서트)과 인문학 특강이 열린다.

이야기 공연에는 사할린 출신 고려인 작가 이정희와 김성조 전 고려일보 주필이 참여해 이주의 역사와 문학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인문학 강좌는 사할린 한인 연구 권위자인 최상구 박사 강사로 나서 강연을 펼친다. 윤용성 기자